

| 발행인 | 진미석

| 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www.snyouth.or.kr

성남시 청소년시설 역할과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2021년 성남시 청소년 포럼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 ▶ **코로나19는 청소년시설,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면중심-공간기반 기존서비스 패러다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
 - 그간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음.
 -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중심-공간기반의 기존 서비스 방식은 한계에 직면함.
 - 청소년 인구 감소 및 4차산업혁명의 물결과 더불어 이미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청소년시설 역할과 기능의 변화 필요성은 긴급하고 광범위하게 제기됨.
- ▶ **3차에 걸친 2021 성남시 청소년 포럼, 청소년시설과 서비스 패러다임의 혁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수렴**
 - 수요자(청소년, 보호자, 교사)는 삶에 대한 계획, 관리 등 삶의 역량 증진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함.
 - 공급자(지도자, 학계)는 청소년시설의 고유영역과 서비스 관련된 주제에 대해 언급함.
 -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 수요자-공급자는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場)’에 대한 요구를 함.
- ▶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청소년 공간으로의 대전환**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 속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산하 시설은 청소년의 삶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질 좋은 청소년 사업,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 등 최적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고 실행 가능한 힘을 키워가는 공간으로서의 방향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의미에 관한 물음

■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소년들을 시설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봉착

- 그동안 청소년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학습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성남시청소년재단, 2021).
 - 청소년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여함(최창욱 외, 2018).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됨. 방과후아카데미, 상담센터 등 보호복지 일부를 제외하고, 방역 강화 상황에서 관심이 줄어들고 수요자의 발길이 끊기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됨.
-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종료와 7차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의 기점인 **현재는 청소년시설 역할과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 재점검하는 주요한 시점임.**
 - 코로나19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비대면 사업의 확대 등으로 야기된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기존의 모습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숙제를 던져줌(이광호, 2022).
- 본 고에서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진행된 3회에 걸친 성남시 청소년 포럼의 여러 목소리를 수렴하고,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성남시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패러다임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함.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사업의 진화(1.0에서 3.0/3.5시대까지)

- 한국 사회의 청소년 사업은 문제 청소년 중심의 1.0시대, 일반 다수 청소년의 여가활동 중심의 2.0시대,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 3.0/3.5시대로 진화함. 오늘날 청소년시설 역할과 기능의 모습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궤를 함께하고 있음.

〈한국 사회 청소년사업의 역사적 변화과정〉

	〈청소년사업 1.0 시대〉 청소년문제 대응 시기 1961년~1984년	〈청소년사업 2.0 시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시기 1984년~1991년	〈청소년사업 3.0/3.5 시대〉 고유영역 중심의 청소년육성정책 시기 1991년~현재
정책이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아동복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아동복지)	청소년육성 (아동복지)
정책과제	일부 문제 청소년의 단속과 보호 및 요구후 아동복지 증진	다수 청소년의 여가 시간 선용과 청소년활동 참여, 환경 개선 및 일반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 사업 3.0시대: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 *청소년 사업 3.5시대: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중심의 청소년 육성제도
주요 영역	청소년문제 영역 (비행, 문제행동 단속, 보호) 중심	청소년 건전 육성과 문제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청소년육성정책 (고유영역: 활동, 복지, 보호 중심)

출처: 이광호(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p.393; 이광호(2021).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미발간자료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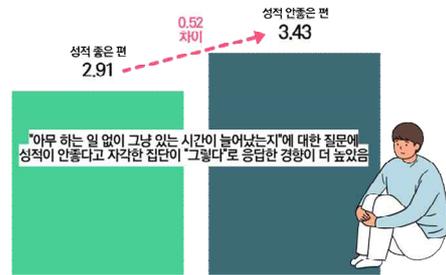
- 근래 청소년의 주체성, 자기 주도성 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에 관한 과제가 반영되었으나 큰 틀에서 활동, 복지, 보호라는 청소년육성 프레임워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광호, 2021).
- 4차산업혁명,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 사업의 현장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가 야기한 자립, 교육, 학습, 정신건강, 신체 건강 등의 격차 상황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고유영역(활동, 복지, 보호) 중심의 청소년 사업 3.0/3.5시대에서 보다 달라진 접근이 필요함.**

각자의 입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며 청소년시설의 방향성을 요구하다.

■ 청소년 : 저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은 신체활동 시간의 감소, 우울감 등 감정변화 및 무위(無爲)시간의 증가를 삶에서 체감하고 생활 패턴이 무너짐을 경험함.** 특히, 청소년 본인이 학업성적이 낮다고 자각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고동완 외, 2020).
-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먼 미래보단 현실에 집중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인 이른바 '갓생(God+인생)'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냄. 그러나 생각한 대로 생활을 하지 못해 스스로 실망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으며, 이는 좌절로 이어진다고 보고됨(신대현, 2022). 따라서 **청소년주도의 학습 여건 마련과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여건이 필요한 시점임.**

〈청소년이 자각하는 학업성적에 따른 무위(無爲)시간 증가 단위:점〉



출처: 고동완 외(2020).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p.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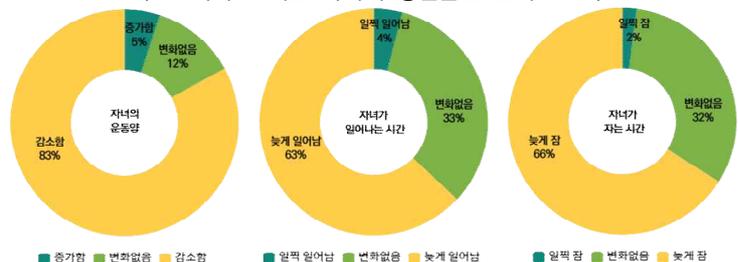
[2021년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청소년 행복, 온앤오프)의 토론회 정규연 청소년]

“청소년 개인의 주도성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ex: 과제형 수행평가, 토론식 수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집에만 있으니 마음먹고 운동하지 않는 이상 신체활동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 홈트레이닝을 하며 체력을 증진시키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 또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 보호자 : 청소년이 작은 단위라도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힘을 길렀으면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는 자녀의 운동의 양,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의 생활 습관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함(임수현 외, 2020). 또한, 보호자는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에 잘 적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혹은 맞벌이로 서의 고충 등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됨.
-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에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상황에 따라 돌봄과 식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작은 단위라도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성남시청소년재단, 2021).**

〈보호자가 느끼는 자녀의 생활습관 변화 단위:%〉



출처: 임수현 외(2020).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가 교사 수업, 학생 학습, 학부모의 자녀 돌봄에 미친 영향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p. 45

[2021년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청소년 행복, 온앤오프)의 토론회 김경자 학부모]

“중하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정해진 시간에 등교할 곳이 없어서 일정한 생활습관의 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 거창하게 인생의 이야기는 놔두고 작은 것이라도 적어보고 실천하는 방법을 모두가 함께 고민한다면 강제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대폭 감소된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주도적인 학습, 생활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 **교사** : 청소년들에게 학습, 관계 맺음, 문화적 기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체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교사들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됨. 교육의 목적은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이 관계를 잘 맺고 온전한 시민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기르는 것임.**
- 코로나19 상황은 많은 것을 앗아갔음. 또래 집단과 교류하기 어려워졌고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심신 건강을 유지하기엔 어려운 환경이 계속됨. 또한 학습, 놀이, 문화 등의 기회를 잃은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교육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 발생 됨.
- **교육 회복을 위해 학습과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시혜적·땀질식 처방은 경계해야 함.**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철저히 객체화되었기에 이들을 **주체로 존중해야 하며 청소년 스스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2021년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청소년 행복, 온앤오프)의 토론자 박영 교사]
“(…)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능력의 발달 기회를 잃었습니다. (…)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시혜적 태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이 학생들을 대할 때 정말 정중하게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회복 차원에서 지원은 땀질식 처방이 아니라 학습과 정서적 지원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도자** : 고유영역을 넘어 청소년시설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청소년 현장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할 수 밖에 없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과 강좌의 연기, 중단, 전환의 반복적인 상황으로 지도자들의 고민은 심화됨.
- 특히나 학교와 달리 청소년시설은 비정형화된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 선택적 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음.
- 또한, 처음 접하는 새로운 방식의 활동 기획, 비대면 상황 속 청소년과의 관계형성, 성과에 대한 부담감, 다중이용시설로의 방역 관리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왔음. 그밖에 코로나19를 통해 청소년 현장에서는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들을 직면하였음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도출됨.

[2021년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청소년의 행복한 일상회복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과제)의 대담자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본부장]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통해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이나 웹툰 감상 등 비대면 온라인 활동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선호도 또한 높음에도 대면활동의 중요성만을 고집하거나 청소년과 지도자, 청소년간의 **면대면이 아니면 활동이 아니라는 지도자의 보편적인 인식들**, 모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치기구, 동아리 등 **일부 청소년들만 점유하는 상황들**, 학교나 커뮤니티센터, 마을공동체 등 **기존 청소년시설이 수행하는 역할을 커버해 가는 기관들** (…)”

- 한편, **기존에 수행해왔던 활동, 복지, 보호 중심의 고유영역에서 역할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물꼬를 트고 있었음.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로 2021년 12월 진행된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에서 현장지도자와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예를 들 수 있음. ‘**청소년시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영역 이외에 새로운 영역(돌봄,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역할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한가?**’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0.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 이러한 응답의 배경에는 자립, 교육, 학습, 정신건강, 신체 건강 등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 현장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2021년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
〈청소년의 행복한 일상회복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과제〉 자료집 p.36

■ **학계** : 청소년시설의 고유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 청소년시설의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 하여 범주를 넓힐 시점입니다.

- 학계의 경우 **청소년시설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관해 고유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타 영역(돌봄, 교육 등)과의 **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 고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들을 다른 분야에서 더 중점적으로 잘할 수 있기에 청소년시설에서는 고유 목적성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함(성남시청소년재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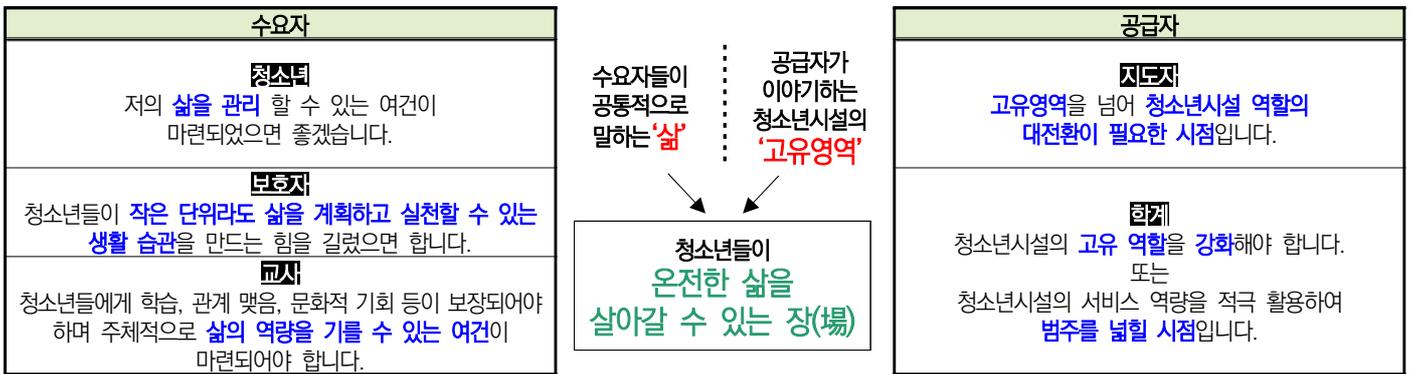
[2021년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청소년의 행복한 일상회복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과제)의 대담자 오수근 교수]
“사회격차 해소에 대한 역할은 복지시설이 더 중점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할수록 우리 고유 목적성에 대한 범위를 축소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 타 영역(돌봄, 교육 등)과의 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소년시설이 이미 급식, 돌봄, 문화/여가, 양질의 쉼터, 학습, 정서지원 등 숨은 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보는 관점임. 요컨대 ‘돌봄’이라면 전국의 많은 청소년시설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도 260여개에 달하기에 돌봄전문기관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이에 청소년시설의 서비스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함.

수요자와 공급자의 목소리에서 확인된 주요 키워드는 '삶'과 '고유영역'

- 수요자 측면에서는 '삶'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작용되고 있었으며 삶에 대한 계획, 관리 등 삶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함이 주로 언급됨. 한편, 공급자 측면에서는 '고유영역'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작용 됨. 고유영역은 특히 청소년시설이라는 공간 속에서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등의 이름으로 존재함.
- 수요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삶'과 공급자가 이야기하는 청소년시설의 '고유영역'은 그 용어만 다르게 표현될 뿐 **청소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방향성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즉 청소년시설은 활동, 복지, 보호라는 청소년 육성 프레임워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삶'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해내야 하는 입시, 자립 등의 과업들은 그대로인 상황이며 여건에 따라서 격차 또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 속에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 당사자·관련자의 일상 속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등의 유연한 형태로, 영역, 주제가 연계되며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틀이 요구됨.

(수요자, 공급자 측면에서 확인된 주요한 키워드와 키워드가 가지는 방향성)



젊은 세대가 주체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과 24시간 함께하는 가상 일과 시간표)



<주요 고객층: 청소년>



<주요 고객층: 청년>

참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에서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 진행된 사업을 모티브로 가상 일과 시간표를 구성함 (홍색표기)

-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의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함에 있어 누구나 거쳐 가는 곳, 경험하는 곳, 삶을 살아가면서 막막하다면 현실 세계, 가상세계이든 함께할 수 있는 곳임.
- 우리 재단은 성남시 청소년이 보내는 하루의 일과를 이해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청소년들이 삶의 동기를 찾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곳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함.